민족자주는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

오늘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반통일세력의 엄중한 도전에 부닥치고있다.

미국은 그 무슨 《북의 위협》에 대해 떠들며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더욱 악랄하게 매달리는 한편 남조선당국을 반공화국대결에로 적극 부추기고있다. 이러한 속에 남조선의 윤석열역적패당은 외세와의 《동맹우선》을 떠들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수행의 돌격대로 나서고있다. 지어 천년숙적 일본과 결탁하여 동족을 해치려 하는가 하면 해외에 나가서까지 반공화국압박공조를 구걸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의 반민족적인 외세의존정책은 두말할것도 없이 북남관계를 돌이킬수 없는 최악의 국면에 몰아가고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치솟게 하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이다.

현실은 우리 겨레로 하여금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내외반통일세력의 대결광란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조국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외세에 의해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조선의 분렬은 외세가 강요한것이며 나라가 오늘까지도 통일되지 못하고있는것도 다름아닌 외세의 악랄하고 끈질긴 방해책동때문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한강로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외세에 의해 70여년동안이나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것보다 더 가슴아픈 비극은 없다. 력사와 오늘의 현실은 외세에 의존하고 추종하여서는 언제가도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복잡하고 첨예한 때일수록 민족문제, 통일문제해결에서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가야 한다.

온 겨레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여야 한다는 투철한 관점과 립장, 든든한 배짱과 자신심을 가져야 한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다. 조국통일위업은 누구도 대신해줄수 없으며 반드시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수행해야 할 민족자주위업이다.

우리 민족은 힘이 약하여 외세에 국권을 빼앗기고 망국과 분렬을 강요당하였던 어제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자체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슬기롭고 힘있는 민족이다.

온 겨레는 우리 민족을 영원히 갈라놓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지배자로 군림하려는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민족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민족내부문제, 북남관계문제를 여기저기에 들고다니며 외세에 구걸하는것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는 매국배족행위이며 반통일행위이다.

조국통일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것도 아니다.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자주의식을 좀먹고 민족자강력을 마비시키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의 길은 의연히 복잡다단하지만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려는 겨레의 강렬한 지향과 의지는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이다.

배길남

위대한 김일성주석 서거 28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에 총련중앙일군들 꽃바구니 진정

위대한 김일성주석 서거 28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는 총련중앙일군들의 모임이 8일 일본 도쿄에 있는 총련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박구호 제1부의장겸 조직국장, 부의장들, 국장들을 비롯한 중앙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에 허종만의장과 박구호제1부의장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의 글발이 모셔져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영생을 기원하여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이어 강추련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겸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리광일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조청과 녀성동맹,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 재일본조선인교육회, 재일본조선인의학협회,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에 꽃다발들을 드리고 정중히 인사를 올리였다.

재중동포들 추모행사 진행

위대한 김일성주석 서거 28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산하조직들이 추모행사들을 진행하였다.

중국 길림육문중학교에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동상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중조선인녀성협회,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길림지구협회 길림시지부 일군들과 길림지구협회 회장, 부회장의 가족들이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중국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관에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영상작품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중남지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중국 단동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에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에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재중조선인녀성협회, 재중조선인청년협회, 료녕지구협회 단동시지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 서거 28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추모회가 8일 총련합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였다.

최수봉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제1부의장을 비롯한 총련합회 일군들과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단 회장, 심양시조선족련의회 회장을 비롯한 산하단체 회장들과 회원, 동포들, 심양주재 우리 나라 일군들, 심양시 공민들이 추모회에 참가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최수봉제1부의장이 추모사를 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속에 어느덧 어버이수령님의 서거 28돐이 되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였기에 우리 인민이 자주적인 인민으로 존엄떨치고 인민대중중심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참다운 주인, 향유자로 값높은 삶을 누려올수 있은데 대해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인민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거룩한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끝없이 빛을 뿌리고있다고 격조높이 말하였다.

그는 사회주의조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르는 길에 모든 행복과 창창한 미래가 있다는 철석의 신념을 뼈속깊이 새기고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을 원수님만을 일편단심 따르는 충성의 대오, 애국동포들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추모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추모행사를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연변지구협회와 중남지구협회, 목단강지구협회, 할빈지구협회 할빈시지부를 비롯한 산하조직들에서 화상방식으로 시청하였다.

본사기자

❖ 조선학교에 다니는 자랑을 안고 ❖

얼마전 일본에 있는 오사까부중고창립 70돐기념 학생문화제가 많은 학생들과 동포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오래간만에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한때를 보낸것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웃음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이번 문화제는 중급부, 고급부생들이 함께 계획하고 준비한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고급부생들이 준비한 《조고축전》에 중급부생이 《손님》으로 참가하는 형식이였다면 학교창립 70돐을 계기로 전체 학생들이 주인이라는 립장에서 행사에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 개최방식을 바꾸었다고 한다.

중급부 1학년생들의 합창으로 막을 올린 종합공연에서는 올해 4월에 정주년을 맞이한 이곳 학교 70년의 력사를 더듬어보는 동영상과 설화, 각 학년의 대표가 출연한 독창무대, 행사참가자들도 함께 참가하는 《3언어자랑무대》 등 다양한 종목들이 올랐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중급부 3학년생들과 고급부 3학년생들이 준비한 다채로운 음식자랑무대가 펼쳐졌으며 야외무대에서 각종 공연도 진행되였다.

고급부 2학년생들이 맡은 특별수업 《즐거운 배움터》도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많은 참가자들이 깊은 관심속에 수업을 참관하였다. 수학수업의 진행을 맡은 박미나학생은 《어떤 수업을 준비하면 후배들이 즐거워하고 도움이 되는가를 다같이 연구하였다.》고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으나 다같이 하나의 수업을 만들어낸 성취감이 컸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후배들에게 조고생들의 떳떳한 모습을 과시할수 있어 기쁘다.》고 말하였다.

문화제에는 여러 초중학교 학생들도 참가하였다.

윤희월학생은 《동포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행사를 오래간만에 경험했다.》고 하면서 래년이면 오사까부중고 고급부에 진학하게 되는데 이곳 학교에서 많은 동창생들과 학생생활을 보내고싶은 마음이 커졌다고 웃으며 말하였다.

한편 행사장에는 일본학교에 다니는 여러명의 동포학생들의 모습도 보였다.

고급부 1학년생들은 조청오사까부의 도움을 받아 일본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문화제에 초청하여 그들과 함께 하루를 보냈다. 모임에 참가한 학생들은 매우 흥미진진한 모습으로 학교를 돌아보았다.

어느 한 학생은 《처음으로 본 조선무용이 인상에 남았다. 맛있는 음식도 많고 즐거운 놀이도 있어서 정말 재미있다.》고 하면서 흥분된 심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모임에 참가한 많은 학생들이 70년의 찬란한 로정을 걸어온 오사까부중고의 력사를 빛내이는 주인으로 성장할 새로운 결심을 다지였다.

본사기자

전하역적들의 패륜적망동

최근 윤석열역적패당이 서울지방경찰청을 내몰아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재출판한 《민족사랑방》 대표와 직원의 자택, 사무실과 인쇄소를 불의에 압수수색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민심의 요구와 지향을 가로막아보려는 반역무리들의 단말마적발악이 아닐수 없다.

다 아는바와 같이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만고절세의 애국자, 불세출의 대성인의 성스러운 생이 수록되여있는 삶의 교과서, 애국애족의 대백과전서이고 우리 민족의 국보이다.

회고록을 읽는 사람들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항일의 혈전만리, 피바다만리를 헤쳐오신 절세위인의 불멸의 업적에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고 칠성판에 올랐던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신 민족의 구세주로 열렬히 흠모하고 칭송하고있다.

남조선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을 읽고 절세위인의 애국애족의 생애를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있으며 회고록에 대한 독서열풍은 날로 더욱 높아가고있다. 《민족사랑방》 관계자들을 비롯한 각계층 시민단체들이 남북의 화해를 위해 항일무장투쟁력사를 서로 공유하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한것이다, 회고록에는 일제강점시기 우리 민족이 독립운동을 위해 싸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여있고 이것은 남과 북을 떠나서 우리 민족이 함께 알아야 할 귀중한 유산으로 된다고 주장하고있는것은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조선민족성원이라면 누구나 읽고 또 반드시 읽어야 할 인생의 교과서라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적패당이 그 무슨 《리적물》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을 출판보급하는 출판사를 압수수색한것은 민족의 구세주를 끝없이 흠모하고 따르려는 민심의 요구와 지향을 가로막아보려는 천추에 용납 못할 반역적망동이다.

남조선 각계층이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회고록을 《리적물》로 단정해놓고 압수수색을 한것은 몰상식한 행위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안통치를 다시 꿈꾼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오판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사상의 자유, 량심의 자유, 민주사회를 짓밟는 《보안법》폐지를 위해 끌까지 싸워나갈것이라고 결의해나서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

정의와 진리는 그 무엇으로써도 짓밟을수 없다.

윤석열역적패당은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로 얻을것은 인민의 준엄한 심판과 그에 따른 비참한 파멸뿐이라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정은혁

통일을 불러

태권도로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한 애국지사 (5)

최홍희선생은 오래전부터 태권도에 관한 기술과 지식을 담은 책을 만들어 후세에 전하려고 마음써왔다.

정통태권도의 《비록》이라고 할수 있는 교범적인 기술서적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아 민족무술을 지켜내야 하겠다는 책임감이 그를 채찍질했다. 그는 《태권도백과사전》집필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태권도백과사전》을 집필함에 있어서 그는 우선 태권도의 핵심인 24개의 틀에 민족의 넋을 담기 위해 애썼다.

그는 틀들의 매 명칭에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으로부터 을지문덕, 연개소문, 리순신, 서산대사, 안창호, 안중근을 비롯한 각이한 력사적시대의 애국명인들의 이름이나 호를 따서 붙였다. 매 틀동작의 수와 연무선은 해당 시대에 일어난 력사적사실을 상징함으로써 훈련과정이 곧 선조들의 애국심을 이어받는 과정으로 되도록 만들었다. 고심끝에 《주체틀》을 새로 창조하였다. 통일을 상징하는 《통일틀》도 만들어내였다.

드디여 그는 《태권도백과사전》에 대한 집필을 마감짓게 되였다.

그때가 1981년경, 집필을 시작하여 10년이란 기간이 흘렀다.

그런데 책을 출판하는것이 난사였다.

자기 당대에 이 책이 과연 출판이나 될수 있을가 하는 위구심도 없지 않았다.

이러한 때 조국에서 《태권도백과사전》에 대한 출판조치가 취해질줄을 그는 꿈에도 생각 못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그가 민족고유의 무술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애쓰는것을 애국애족의 소행으로 평가해주시며 《태권도백과사전》을 출판하는것은 아주 좋은 일이니 조국에서 뒤받침을 잘해주도록 해당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평양에서는 《태권도백과사전》의 출판을 위한 집단이 무어졌고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였으며 《태권도백과사전》출판이 시작된지 8개월이 지난 1983년 4월에 드디여 《태권도백과사전》 제1권이 완성되게 되였고 전 15권에 달하는 방대한 《태권도백과사전》이 1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공적으로 출판되게 되였다.

《태권도백과사전》의 출판으로써 태권도는 명실공히 우리 민족의 정통무도로 계승발전되였고 통일에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조국에서는 《태권도백과사전》 전 15권에 대해 우리 말은 물론 영어, 프랑스어, 에스빠냐어 등 각 나라 말로 출판하였다.

최홍희선생은 그 감격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이 책을 집필하고 출판하기까지는 실로 13년이란 긴 나날이 걸렸다. 이제 최홍희는 죽어도 한이 없다.

태권도는 내가 비록 만들었지만 가장 어려운 때에 주석님과 장군님께서 재생의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오늘날 우리 민족의 무술로 세계에 그 자랑을 떨치게 되였다.》

1992년 9월 10일.

평양의 청춘거리에서는 새로 일떠선 태권도전당개관식이 성대하게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이날 개관식에 참가한 최홍희선생의 기쁨과 감격은 참으로 컸다.

그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내가 조국에 와서 흙 한삽 떴습니까, 나무 한그루 심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조국에서 해외망명객에 불과한 저를 알아 내세워주고 태권도전당을 지어 온 나라가 태권도를 할수 있도록 하였은즉 태권도를 만든 사람으로서 참으로 백골난망이올시다.》

이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최홍희선생과 함께 공화국태권도 사범들과 선수들의 시범훈련을 보아주시고 태권도의 조국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태권도를 해야 한다고 하시며 태권도를 대중화, 생활화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후 공화국에는 국제태권도련맹산하에 태권도를 전문으로 하면서 대중적으로 보급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전문기구, 조직적거점이 마련되였다. 태권도전당을 중심으로 태권도를 보급하는 정연한 조직체계가 세워지고 양성체계도 세워져 태권도를 대중적으로 보급하게 되였다. 전국적으로 태권도과외체육학교, 태권도구락부를 내오고 태권도경기대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태권도보급이 급속히 진척되였다. 뿐만아니라 태권도는 5대륙의 140여개 나라 5천만의 태권도인을 망라하여 전세계 무술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강력한 무도로 되였다.

이렇게 태권도는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고 그것은 곧 최홍희선생이 태권도로 통일애국에 바친 삶을 빛내여나가는 길이기도 하였다.

본사기자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녘 각계층의 투쟁

《유신》잔당청산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남조선에서 박정희《정권》이 종말을 고한 1979년 《10월사태》이후 남조선 각계층속에서는 사회의 민주화에 대한 지향과 요구가 급속히 높아졌으며 민주세력을 결속하기 위한 정치활동도 더욱 활발히 벌어졌다.

이에 질겁한 외세와 《유신》잔당들은 민주세력의 진출을 가로막고 파쇼독재체제를 유지해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였다.

외세의 배후조종과 비호밑에 1979년 12월 12일 숙군쿠데타를 일으켜 군권을 장악한 전두환역적은 군사파쇼통치체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민주세력에 대한 파쇼적탄압선풍을 일으켰다.

《유신》잔당들은 《10월사태》이후 첫 두달동안에만도 각계 주민 2만 5 560여명을 체포투옥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유신》잔당들을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또다시 결연히 일떠섰다.

《유신체제》와 《유신》잔당들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은 학원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청년학생들의 투쟁으로 시작되였다.

1980년 2월초부터 산발적으로 벌어진 청년학생들의 학원민주화투쟁은 4월중순경에는 남조선전역을 휩쓸었다. 학원의 민주화를 위한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은 5월에 들어서면서 군사파쇼통치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보다 높은 단계의 투쟁으로 확대발전되였다.

남조선 각계는 청년학생들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공감을 표시하면서 생존의 권리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섰다.

남조선 각계층의 반파쇼민주화투쟁은 군사파쇼독재통치에 대한 원한과 울분의 폭발이였다.

남조선 각계층의 대중적항거에 당황망조한 전두환군사파쇼도당은 1980년 5월 17일 밤 《비상국무회의》를 열고 남조선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으며 학생운동핵심들과 정계, 종교계의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체포투옥하였다.

5.17파쇼폭거에 의해 남조선은 인권과 민주가 깡그리 말살된 거대한 감옥, 암흑지대로 화하였다.

5.17파쇼폭거는 남조선에서 무너져가는 《유신체제》를 지탱하기 위한 또 하나의 쿠데타였다.

5.17파쇼폭거를 계기로 《유신》잔당을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반파쇼민주화투쟁은 더욱 급격히 확대되게 되였다.

본사기자 김영진